

축구계 썬의 전쟁...슈퍼 갑 차이나머니, 말라붙은 오일머니

사커 토크

오스카 이어 카르발류도 상하이 상강 입단 중국 슈퍼리그, 겨울이적시장 '큰 손' 등극 잠잠한 중동...레오나르도 영입이 빅뉴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찾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축구계에는 다른 기준까지 포함시켜야 할 듯하다. 더 맛있고, 더 많은 먹이를 찾으려면 '썬'도 따라줘야 한다.

2017년 1월 국내외에서 겨울이적시장이 한창이다. 전 세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특히 중국 슈퍼리그(1부)의 행보가 대단하다. 예전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제이적시장의 몸값 상위권을 찍은 상당수의 특급 스타들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그야말로 중국은 '슈퍼 갑(甲)'이라 부를 만하다. 9일에도 엄청난 소식의 전례였다. 지난해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에서 포르투갈의 우승에 기여한 베테랑 중앙수비수 하카르도 카르발류(38)가 상하이 상강에 입단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다.

FC포르투(포르투갈)~첼시(잉글랜드)~레알 마드리드(스페인)~AS모나코(프랑스) 등 주요 유럽 빅리그를 두루 거친 카르발류는 지난해 여름 모나코를 떠난 뒤 새로운 행선지를 모색해 왔는데,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상하이 상강의 전지훈련에 합류했다. 그러나 이적료가 없는 FA(자유계약선수) 신분이라 몸값을 구체

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물론 중국 클럽들은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 엄청난 이적료가 발생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저 없이 지갑을 연다. 이미 상하이 상강은 브라질국가대표 오스카(26)를 데려오면서 6000만유로(약 762억원)를 첼시(잉글랜드)에 지불했다. 이적료를 기준으로 한 겨울이적시장 최대 몸값이다.

지난해 중국 갑리그(2부)를 평정하며 새 시즌을 슈퍼리그에서 맞이할 첼시에서 펼치는 물량공세도 엄청나다. 벨기에국가대표 미드필더 악셀 비첼(28)을 제니트(러시아)로부터 2000만 유로(약 254억원)에 영입했다. 첼시 취안젠이 인상적인 이유는 또 하나 있다. 비첼 영입에 앞서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전북현대에서 활약하다 아랍에미리트(UAE) 알 아흘리로 떠났던 중앙수비수 권경원(25)을 이적료 1050만유로(약 133억원)에 아시아쿼터로 데려갔기 때문이다. 권경원이 찍은 이적료는 이번 겨울이적시장을 기준으로 순수 아시아선수로는 단연 최고다. 최상위권 톱 10 진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겨울이적시장에선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도 있다. 말라붙은 '오일머니'다. 얼마 전까지 세계축구계에서 '큰 손'으로 명성을 떨치며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중동시장이 비교적 잠잠하다. 최근 가장 눈에 띄었던 빅뉴스는 380만유로(약 48억원)에 전북에서 브라질 공격수 레오나르도(31)를 영입한 알 자지라(UAE) 정도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트넘 손흥민(오른쪽 2번째)이 9일(한국시간)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벌어진 애스턴빌라와의 2016~2017시즌 잉글랜드 FA컵 64강전 중 치열한 볼 경합을 펼치고 있다. 손흥민은 후반 35분 2-0 승리를 확정짓는 빼기골을 터뜨려 팀의 32강 진출에 일조했다. 권민 | AP뉴시스

쇼핑 즐기는 중국...실속 챙기는 한국·일본

이적료 부담 없는 FA 자원 영입에 주력 임대를 선조건으로 내거는 팀들도 늘어

떠들썩한 중국과 달리 K리그와 일본 J리그는 확실히 조용하다. 워낙 오래 전부터 내수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거금을 들이는 데 주저하는 모습이다. 니름 '대어'로 분류될 만한 스타급 자원들이 이리저리 행선지를 옮기고는 있지만, 대개는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새 유니폼을 입고 있다.

K리그의 겨울이적시장은 FA(자유계약선수)가 대세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해 '아시아 챔피언'에 등극한 전북현대도, 클래식(1부리그)을 제패한 FC서울도 주로 FA 자원들을 대상으로 선수단 리빌딩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초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식한 K리그 FA 자격 취득자는 252명. 이 중 입단년도가 2004년 이전인 선수들은

FA 자격을 얻었어도 이적료가 발생하고, 2013년 신설된 보상금 대상자(2005년 이후 입단자로 만 32세 이하 등)로 분류된 이들은 71명이다. 물론 일부 이적료와 보상금이 있어도 연차별로 상정된 이적료보다 많을 수는 없다.

국제이적에서도 전반적 흐름은 비슷하다. 이적료가 발생한 이적은 '몸값 짝꿍'을 터뜨린 권경원(25·첼시 취안젠)이 사실상 유일했다. 해외 무대로 향할 때도, 반대로 해외에서 돌아올 때도 FA로 완전히 풀린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외국인선수를 데려올 때도 임대를 선조건으로 내거는 팀들이 늘어났다.

일본도 K리그와 큰 차이가 없는 형편이다. 트레드나 이적료 없는 이적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굳이 꼽자면 브라질 공격수 에드밀손을 임대했다가 완전 영입한 감바 오사카가 지출한 260만유로(약 33억원)가 눈에 띄는 정도다. 남정현 기자

손흥민 시즌 8호골...리그 골도 부탁해

손흥민(25·토트넘)이 새해 첫 득점포를 가동했다. 벌써 시즌 8호 골이다.

손흥민은 9일(한국시간) 런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벌어진 애스턴빌라와의 2016~2017시즌 잉글랜드 FA컵 64강전에 선발출전해 후반 35분 팀의 2-0 승리를 확정짓는 빼기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새해 첫 골로 팀이 대회 32강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하면서 가치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29일 사우샘프턴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득점한 이후 11일 만에 다시 골맛을 보면서 지난 시즌 뽑은 8골과 동률을 이뤘다.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아 20라운드까지 마친 사실을 고려하면 올 시즌 손흥민의 득점 페이스는 상당히 빠른 편이다.

후반 들어 본격적으로 공격능력이 살아난 손흥민은 수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빈센트 안셀라 간결한 패스플레이로 상대 수비라인을 허물었고, 17분에는 직접 문전으로 쇄도해 강한 슈팅을 시도했다. 그리고 35분 마침내 시즌 8호 골을 넣었다. 경기 후 손

FA컵 빼기골로 새해 첫 득점포 가동 주전경쟁 입지 강화 리그 활약 관전

흥민은 "승리와 함께 다음 라운드에 진출해 정말 행복하다. 일단 어느 경기를 나가서 골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FA컵과 프리미어리그, 유로파리그 모두 언제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모처럼 킬러 본능을 뽐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팀내 주전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에 속한 애스턴빌라와의 FA컵 64강전은 비주전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시험무대였다. 이날 첫째 딸을 얻어 아빠가 된 해리 케인은 휴식 차원에서 결장했고, 킬러 알리도 후반 15분이 돼서야 그라운드를 밟았다. 최근 리그에서 선발과 교체 올리는 손흥민으로서 FA컵에서 마무리까지 포체티노 감독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으나, 불운은 공격감각을 리그에서도 이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최근 K리그 대다수 구단들은 외국인선수 영입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있다. 전남 드래곤즈는 헝가리국가대표 출신 로베르트 페체신(왼쪽)을 영입해 공격력 강화를 꾀하고 있고, 인천 유나이티드는 크로아티아 출신 수비수 부노자와 새 시즌을 함께한다. 사진제공 | 전남 드래곤즈·인천 유나이티드

K리그 외국인선수 물갈이 한창

전북, 레오나르도 이적·로페즈 공백 보완 서울도 아드리아노 이적 대비 대안 모색

올 겨울 K리그에선 강원FC의 '폭풍 영입'이 이어지면서 관심을 모았지만, 타 구단들의 선수 영입은 예년에 비해 잠잠했다. 대부분의 구단들은 국내선수 영입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을 외국인선수로 보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전북현대에는 외국인 공격수 영입이 절실하다. 간판 공격수로 활약한 레오나르도(31)가 아랍에미리트(UAE) 알 자지라로 이적했고, 로페즈(27)는 십자마도 부상을 당해 장기 결장이 불가피하다. 레오나르도(12골·6도움)와 로페즈(13골·6도움)는 지난해 25골·12도움을 합쳤다. 당장 이를 상쇄할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 전북은 지난해 전반까지 성남FC에서 뛰었던 티아고(24·알 힐랄)의 영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 소속팀과의 계약문제가 남아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남 드래곤즈는 9일 공격력 강화를 위해 헝가리국가대표 출신 로베르트 페체신(31)을 영입했다. 페체신은 현재 헝가리리그 비데오톤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8골·3도움을 기록 중이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주축 수비수 요니치(25)가 일본 J리그 세레소 오사카로 이적한 공백을 지우기 위해 크로아티아 출신 수비수 부노자(28)를 영입했다. 이렇듯 외국인선수 진용을 개편하려는 각 구단의 발걸음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한편 FC서울은 간판 스트라이커 아드리아노(30)가 중국 슈퍼리그 스자칭의 러브콜을 받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 이적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드리아노는 스자칭 외에도 중동 여러 클럽들의 타깃이라 언제든지 팀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은 아드리아노의 이적에 대비해 대체선수를 모색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stop@donga.com

썬 잡고 베트남 잡고...강원FC '1석2조'

주한베트남대사관서 입단식 개최 강원도 관광 유치 '마케팅 효과'도

오프시즌 들어 공격적인 선수 보강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강원FC가 아시아쿼터로 영입한 베트남국가대표 출신 리영 썬(22)을 위해 특별한 입단식을 열었다.

강원은 9일 서울 종로구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조태범 대표이사과 팜 후이 썬 주한베트남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썬의 입단식을 개최했다. 조 대표이사는 "썬을 영입하기 위해 6개월 전부터 공을 들였지만, 그동안 우리가 챌린지(2부리그) 소속이라 뜻을 이루지 못했다. 클래식(1부리그)에 승격한 뒤 다시 접촉해 어렵게 영입에 성공했다"고 설명한 뒤 "뛰어난 패시 능력과 넓은 시야를 갖춘 썬은 내년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는 우리 팀

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썬 대사는 "베트남 최고 축구선수 중 한 명인 썬의 강원 입단을 축하한다. 썬이 강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더 많은 베트남 선수들이 K리그에 진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한국무대 첫 해를 보낸 썬은 "아시아 최상위 리그인 클래식에 몸담으며 많이 성장했고, 자신감이 얻었다"며 "강원은 올해 큰 성과를 이룰 좋은 팀이다. 기회를 주신 강원에게 감사한다. 내 약점을 보완해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원이 썬의 입단식을 이례적으로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연 것은 '베트남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차원이다. 강원은 썬의 활약으로 약 15만명에 이르는 재한 베트남인들의 관심 제고뿐 아니라 베트남인들의 강원도 관광 유치 및 구단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홈구장인 평창



베트남국가대표 출신 썬(가운데)이 9일 서울 종로구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열린 강원FC 입단식에서 조태범 강원FC 대표이사(오른쪽), 팜 후이 썬 주한베트남 대사(왼쪽)와 함께 입단을 지켜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알펜시아 스키점핑타워 축구장에 설치하는 LED 광고판에 베트남어 광고도 준비 중이다. '베트남의 박지성'으로 불리며 베트남 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입단식 현장은 다수의 베트남 언론도 찾아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이랜드 박건하 감독 사임...새 감독에 김병수 K리그 챌린지(2부리그) 서울이랜드FC가 9일 영남대 김병수(47) 감독을 신임 사령탑으로 임명했다. 계약기간은 3년. 이랜드 구단은 "한만진 신임 대표이사 체제에서 팀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구단의 뜻을 받아들여 합의 하에 박건하(46) 감독과 결별하고 김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포항, 마케도니아 출신 즐레 코치 영입 포항 스틸러스는 9일 마케도니아 출신 즐레(52) 코치와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즐레 코치는 2008년부터 4년간 포항 유스팀 선수들을 지도한 바도 있다. 포항은 또 이종규, 변종근 트레이너와 박철호 전력분석관도 선임했다. 송라 클럽하우스에서 훈련 중인 포항 선수단은 10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해 전지훈련을 한다. 25일 귀국 예정.

FC바르셀로나, 비아레알과 1-1 무승부 FC바르셀로나가 9일(한국시간) 캄프누에서 벌어진 2016~2017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비아레알과의 17라운드 홈경기에서 종료 직전 타티리오넬 메시의 프리킥 동점골에 힘입어 1-1로 비겼다. FC바르셀로나(10승5무2패·승점 35)는 레알 마드리드(12승4무·승점 40), 세비야(11승3무3패·승점 36)에 이어 3위를 달렸다.